

부활 제 6주일

숲 정 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 너희와 영
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 14, 16).

기도서 300면 (A해)

제1독서: 사 도 8,5-8.14-17

제2독서: I 베드 3,15-18

복 음: 요 한 14,15-21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강 료



부럽다,
쥐꼬빠기 붕어놈

김 병 운 신부

한강에서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척 정
겨운 느낌이 든다.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 할 일인데도
말이다. 몇 달 전만해도 가까이 들여다 보고 싶지않던
악취와 오물 그리고 기름 투성이의 구정물이었다. 어중
의 감소도 물론이려니와 기형 고기의 출현과 기름 내음
에 찌드러운 어패류는 외면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
나 오늘의 한강은 몸을 담그어 보고 싶도록 정수되어졌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생물체는 그 영향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를 잘 가르켜 준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고”(요한 3,5). “성령으로 인
하여 의화되었다”(로마 8,11. 15~16). 그 결과 “성령에
서 나온 영이 되고”(요한 3,6~8). “그리스도와 한 몸”
(I고린 6,17)이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
암아 아버지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몸의 자체가 되어 새
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
을 따라 사는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같이 성령의 영역(환경) 안에 들어가 영의 생활을
할 때 참 신앙 안에 살고 참다운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것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과 접하여 사는 동안 감각적이고 물
질적인 차원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감각과 물질
그 자체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물
질적인 마음자세가 바로 신앙에 대립되는 것임을 알아야
겠다.

우리 모두는 믿고 따르고 지킴이 아니라 약속한 봉헌자
들이다. 그러나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의 삶이 우리
를 강하게 이끌 때 봉헌의 자세는 홀어지면서 자기 중심
의 삶으로 빠져들고 만다. 결국 ‘영의 영역이요’, ‘은총
이요’라는 환경의 여건은 아랑곳 없이 철저한 자기 신봉
자로 독존하고 만다.

신앙인이고 봉헌자라고 자처하면서 참 신앙의 삶을 제
힘치 못하고 참 봉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의
영역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깨끗해진 한강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는 쥐꼬빠기 붕어
놈을 생각하면서 “영”의 영역 안에서의 삶의 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환경정화임을 일깨우자.

(교구청·관리국장)



5월의 기도

“제일 좋은 시절, 가장 고운 꽃 모아, 기쁜 노래 부르
며” 성모를 찬미하는 이 5월이 어찌 이다지도 어둡기만
한가? 대학가에서는 최후탄이 그칠 날이 없으니, 어찌
이 5월을 회창하다고만 노래할 수 있으리오? 참으로 답
답하다. 이토록 어둡고 긴 5월이 지금 가고 있다.

7년 전 이 땅의 5월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어느 시
인은 그때의 정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창자를 길바닥에 쏟아놓은 채/산짐승처럼 나자빠져 죽었
고/더미더미 쌓였던 시체와 시체/어른들과 산 사람들은
끝려가 갇히고/그날, 금남로는 거대한 하나의 지옥, /인
간이 인간을 배반한 저주의 거리였다.” 이러한 아픔을 눈
으로 보고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어찌 쉽게 잊을 수 있
으리오?

우리는 흔히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쉽게들 말한다. 엄
연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이 시작하자고 말
한다. 어찌 그럴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그 상처가 크고
아프기에 잊어버리고 싶은 심정도 들겠지만, 그건 안된
다. 당한 쪽이 크나큰 사랑으로 용서를 한다면 또 모른
다. 그러나 객들이,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그렇게 말해
서는 안된다. 오히려 근원적인 치유방법을 찾는 데 힘써
야 한다. 아니, 그것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있
어야 한다.

올해에도 이 5월을 지내며 뜻있는 사람들은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민주화 뿐”이라고. 그렇다. 이제
는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아직도 더 많이 울려야 할 때
/아직도 더 많이 쏟아야 할 눈물/아직도 멎지 않는 유
혈 속에서/천 번을 죽어 천 번을 다시 살아나는...” 아픔
을 부활시켜야 한다. 오직 하나, 민주화만이 그 부활의
표징이다. 성모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이 민족을 위
해 빌어주소서.

숲 정 이 산책

김강하심시오
—전주교구신자 일동—

성 모 성 년(聖母聖年) 이 란 ?

성년(聖年, Annus Sanctus)은 한 마디로 특전을 받는 시기다. 거룩한 교회에 강한 힘을 주는 때이며 교회의 대축제라고도 불려진다.

십자군 시대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간접적 기원은 구약 시대의 회년(禧年)에서 찾을 수 있다. 회년은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데 노예가 된 유대인은 회년이 되면 해방되었고 빚을 탕감 받았고, 이웃간의 화해를 노력했다. 성년도 이와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성년에는 대사(大赦)를 베풀고 신자들이 영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현행 교회법과 같은 성년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제정되었고 1300년을 기준으로 100년을 주기로 하여 성년을 정하고 이 기간중 신자들은 규정에 따라 주어질 보속을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고 연옥의 영혼에게 그 대사를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대사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로 확장되어 대사가 있을 후 6개월 동안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신심축제가 각국 나름대로 베풀어지게 된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황 재위 9년 1987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에 미사강론을 통하여 교회사상 두번째(첫번째는 1953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선포됨) 성모성년(聖母聖年)을 선포하셨고 그후 3월 25일 성모영보 대축일을 기하여 성모성년 칙서를 반포하셨다.

성년은 크게 상례적 성년과 특별성년으로 나누는데 금년의 성모성년은 특별성년으로 6월 7일 성심강림 대축일에 시작되어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끝나게 함으로써 이례적으로 14개월의 성년을 선포하신 것이다.

「구세주의 모친」(Mater Redemptoris)이라는 칙서는 본문 전체 구성이 3부로 되어 있으며 제1부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의 마리아, 제2부는 순례자의 교회의 충실에 계신 하느님의 모친, 제3부는 모성적 중재를 말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교 2천년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구약시대에 구세주 대림을 기다리던 때와 같이 2천년대를 맞이하게 되는 전 세계 인류 안에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종말론적인 준비를 하도록 성모님의 태중에 성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으시게 되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세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참된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요지이다.

—다음호 계속—

(경) 성 모 성 년 선 포 및 어 버 이 효 도 행 사 (축)

일 자 : 5월 25일 오전 10시

장 소 : 전주 실내체육관

행사 제 1부 : 성년선포 및 장엄미사

10시—입장과 묵주의 기도·봉헌송

10시30분—성년선포 및 장엄미사

(교황 전대사 강복 있음)

12시—결식식사

행사 제 2부 : 신앙 이어준 어버이 효도행사

1시30분—교구설결과 전주교구(강연)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2시—자치교구설정 당시의 모습(강연)

김후만(비오)(전 꼬미씨음 단장)

2시30분—훈장 수여식

자치교구 설정 이후 태중교우로, 70세 이상 교회에 공헌한 교우로써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는다

행사 제 3부 : 박정일 주교님 회갑 축하식

3시30분—축하식

행사 제 4부 :

5시30분—회갑 축하연

가톨릭 센타 강당

초청인—성직자·수도자·평신도·사목회장·

단체장

천연 알카리 생수

(충북 미원본당 발골)

회원 모집중(선착순)

전주동우회 5-4205

(센타 2층)

이리 " 52-5595

군산 " 64-4481

대표 박병준 신부

가정도착가격 10ℓ 1,500원
*청주교구장 인준단체입니다

고농중요농약사

(구, 성모병원 상가)

농약·종자·농자재

엽가 판매

전화 82-4040~1

82-8468

박 동 왕(요한)

풍 전 가 스

가정용·영업용 가스시설

한 상 철(메트로)

김 영 주(가타리나)

전화 84-8745

82-7682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 전문의 마 기 환

한남회(비리시다)

오거리 한일은행

건너편 2층

☎ 75-2203

교 구 소 식

☆ **축 !** **검진 :** 성심학교-30일 오후 3시, 전동천주교회-30일 오후 8시
주례-박정일 주교

1. **성모성녀 경축 특별피정 :** 주제-말씀과 성령과 마리아
일시-6월 6일(토) 오전 9시40분-7일(일) 오전 6시, 장소-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강당(윤호관), 초청강사-박정일 주교, 김환철 신부, 김정원 신부, 오기선 신부,
이인복 교수, 김발다살 회장, 참석대상-모든 교우(예비교우 환영)
참가비-1,000원(도시락 각자 지참)-
2. **5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 29일(금) 오후 11시
장소-전주 효자동 천주교회, 참가대상-모든 교우들
3. **교구 울뜨레야 연기 :** 각 본당 울뜨레야 회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기 결정함
일시-7월 17일(금), 장소-해성중·고 강당
4.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 성소피정 :** 주제-영원한 기도
대상-성소에 관심있는 고졸 이상, 영세한지 3년 이상 된 3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
대-87년 6월 7일(일) 11시~16시까지
곳-성북동 수도회 본원, 피정비-1,000원, 연락처-(02) 762-2067
5. **천주교 전주교구청 전화번호 변경안내 :** 87년 5월 25일부터 5-0041~43을 전화국
국번 변경으로 인해 85~0041~43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0만인 성지순례(숲정이→치명자산, 오후 2시)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24(일)	이 덕 근 신부	30(토)	박 중 근 신부	31(일)	정 천 봉 신부

♣ 잠 간 !

뜨거운 친교와 화목의 날,

그리스도교의 본질 자체가 강렬한 이웃 사랑이다. 인간이 늘 지향하는 십리적 합일을 지향하여 철저한 인간교류와 따뜻한 대화에 이르는 형제애가 그것이고 교회가 곧 그런 곳이어야 한다.

솔직히 우리는 형제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공동체에 익숙해져 있다. 때로는 교우(敎友)라는 말을 쓰기가 매우 쑥쓰러울 지경이다. 물론 본당별로 교우적(敎友的) 친교를 위하여, 성지순례, 소풍, 본당의날 등.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교구단위라든가, 본당단위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우애와 친교의 시간, 장소는 전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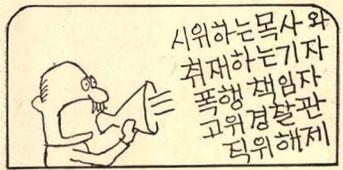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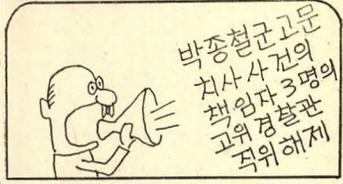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형제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셨다”(현대 사목헌장). 우리 교구로 봐서 25일(월)은 하나의 친교의 날이요 하나의 친교의 만남이다.

성모성녀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신앙을 이어준 부모님을 모시고, 더구나 회갑을 맞으신 교구장 박주교님의 건강하십과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흥겨운 한마당에서 노래라도 함께 부르자.

뜨거운 형제애 속에서 서로 감사하고 기록한 시기, 잘 보내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이 날에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여 함께 하자.

교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교우(敎友)로써의 뜨거운 친교와 화목의 날이 되자.

요십이(720) 김병오



□ 1분 명상

자신을
들어 울리는 영혼은
은 세상을
들어 울린다.

-파스칼

명동피부과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사(赦)함 받지 못한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태 12: 31-32,
마르 3: 28-30)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센타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 이 전 개 원 *

엄 소 아 과

효자동 광진 목화 임대아파트 앞

전화 83 - 3 8 3 9

소아과 전문의 **엄 의 도(시몬)**
권 혜 자(세라피아)

하 문 드

재즈 피아노 > 교습 전 자 울 겐

☎ 85-0615·82-4792

전주시 서노송동 568-54

위치 : 시청 200m→노송

동 전북은행앞 2층

정 그레고리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마오로 서원 옆

☎ 72-5 7 7 0

김 홍균(베드로)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총알)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 의도

(등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반미사안내: 27일 오후8시, 4반-김선영(3-1596)
1. 성모성년선포 장엄미사 및 아버지 효도행사: 25일, 장소-실내체육관, 10시-장엄미사, 1시30분-아버지 효도행사 및 교구장 회갑 축하식
2. 성모의밤 행사: 30일 오후 9시, 성모상 앞 단체별·개인별 헌화(화분) 및 초 준비하기 바람
3. 견진: 성신강림대축일(6월 7일) 교리-6월 2일~5일 오후 7시30분 신청 및 접수-다음주일까지 사무실
4. 유아세례: 29일(금) 오전 10시까지 접수바람
5. 모임: 청년연합회-30일(토) 오후 8시 재속형제회-31일(토) 오후 2시
6. 주일학교 소풍: 오늘, 덕진 황능(미사-오후 3시) 어린이 미사는 소풍관계로 본당에서 없습니다
7. 성체회: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8.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신입 및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30,250원 교무금: 451,000원

- 1. 제 1회 본당의날: 모두 모두 참 잘했어오 ※ 단합된 힘으로 수녀원을 건립합시다
2. 6월은 예수성심월: 예수님의 마음을 아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3. 6월 9일~7월 13일까지 본당신부님의 긴 피정기간입니다: 신부님이 안계시는 동안 손님신부님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게실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4. 김영수(헬리교) 화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 금주 구역미사·모임: 화·금요일 오후 8시30분 26일: 미사-동4구, 모임-화전리 27일: 나눔잔치-월반월
6. 모임안내: 애덕회-차주 공식미사 후 구역장 회의-28일 오후 8시30분
7. 본당청소: 하늘의 문
8. 수녀님 가정방문: 매괴의 모후
9. 금주전례: 해설-최기철, 독서-①손택규 ②최병길 차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진창수 ②전점순
□ 지난주 봉헌금: 263,000원(내동 17,250원) 교무금: 190,000원 나눔의날 헌금: 44,07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오늘은 애령주일: 기도회 있음(2차헌금 있음)
2. 푸르실로 울뜨래야: 공식미사 후
3. 금성회·금암회 월례회: 차주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29일 미사중 ※ 대상자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5. 성모의밤 행사: 30일 저녁 9시
6. 전신자 성지순례: 6월 14일 배론성지, 참가비-5천원
7. 성년선포 장엄미사 및 아버지 효도행사: 25일 오전 10시, 장소-실내체육관
8. 신축헌금, 50주년 행사비: 신입세대 완납바랍니다 미신입세대 신입바랍니다
9. 예비자 특별교리: 27일부터 6월 6일까지 ※ 통신교리 수료자 수녀님 면담바람
10. 감사, 신축헌금: 김수곤-4만5천원, 조영숙-1만원 오영순-2만원
11. 금주부사: 김명수·김육기 차주: 이창우·문승욱
12. 금주봉헌: 김갑기 부부 차주: 김종섭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30,480원 교무금: 484,000원 신축헌금: 75,000원

- 1. 성모성년선포 장엄미사 및 아버지 효도 기념행사 25일 오전 10시, 실내체육관
2. 성전정화사업: ①협조해 주신분께 감사 ②신입 안한세대 신입바람 ③신입세대 납부에 협조
3. 예비자 성지순례: 일시-오늘 오후 2시 장소-일정아 치명터(해성학교)→치명자산, 지참물-미사도구
4. 꾸리아 월례회: 공식미사 후
5. 성모의밤 행사: 29일 오후 9시로 변경 ※ 개인 및 단체별로 꽃·초 대신 헌금봉헌
6. 30일: 병자봉성제(오후 4시), 유아세례(오후 6시)
7. 예수승천 대축일: 31일 야외미사, 장소-마전 뒷산 (아침 저녁미사만 본당에서 있음), 미사시간(오전10시)-외곽교우 인사(오전 11시)-점심(12시)-오락시간(1시), 준비물-미사도구
8. 6월반 예비자모임: 주일반·신부님반-목요일 저녁
9. 대학부 MT 야유회: 장소-대둔산, 30일 오전 8시 30분 성당에서 출발, 회비-3천원 참가대상-본당 소속 대학생 전원
10. 미사안내: 바다의별
11. 금주 본당청소: 화-자비의 모후, 토-상아보탑
12.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창현·민복순 봉헌기도-윤홍진·양영아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진섭·김영화 봉헌기도-양승진·홍진욱
□ 지난주 봉헌금: 403,100원 교무금: 423,1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 성모성년 선포식 및 주교님 회갑잔치: 25일 전주 실내체육관
1. 오늘의 모임 사목회 임시회의-공식미사 후, 사도회의실 진복회-공식미사 후 청년연합회원과 부활영세자(젊은이)와의 만남-저녁 미사후 2층 회합실
2. 구역장·반장 모임: 27일 오후 2시, 2층 회합실
3. 레지오단원 미사: 매월 비례주 수요일, 27일 ※ 각 pr단원 많은 참석요망
4. 부활영세자 참회예절 및 첫 고백성사: 29일 저녁8시 성당
5. 성모의밤 행사: 30일 저녁 7시30분, 성모상 앞
6. 예수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및 소풍: 31일 장소-동물원 옆 예비군 교육장 10시30분까지 입장 완료해 주세요 (이날은 본당에서는 새벽·저녁미사만 있습니다) ※ 상품을 협조해 주실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농번기 중(6월말까지) 본당 토요일 새벽미사 신설되었고, 공소 주일미사는 겨우주 저녁 9시에 드립니다
8. 송천성당 신축헌금: 납부에 적극 협력바랍니다 현재 신입총액-185,260,000원 (L·M 추가액-6,064,000원)
9. 금주 본당청소: 상아보탑pr-30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659,020원 교무금: 403,000원

- 1. 첫영성체: 24일 오후 4시, 부모님 참석바랍니다
2. 성모성년선포 장엄미사: 25일 오전 10시 오전 9시30분까지 입장완료, 덕진 실내체육관
3. 꾸리아 월례회: 24일 오후 2시, 톨슨피아노학원
4. 성모의밤: 29일 오후 7시30분~9시
5. 승천대축일 야외미사: 31일 오전 11시15분 ※ 오전 10시 본당에서, 장소-송광사 학생야영장
6. 부채 판매합니다: 성전전립기금, 겐마회에서
7. 자모회의: 28일 어머니미사후
8. 전화번호 및 국번 변경통신부: 알려 주세요
9. 성당에서 의복을 단정히 합시다
10. 감사: 노송 중·고학생 체육대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11. 금주 본당청소: 새벽의 모후
12. 금주전례: 해설-최병자, 독서 및 기도-①양기춘 ②이은섭, 봉헌-신용진 부부, 안내-김병문·최용선 차주전례: 해설-안남근, 독서 및 기도-①정수일 ②하정애, 봉헌-김환장 부부, 안내-김병선·박동철
□ 지난주 봉헌금: 401,180원